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東泉 金坪珍과 曉泉 康忠男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Spirit and Social Contribution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Focused on the Kim Pyong-Jin and Kang Chung-Nam-

고 광 명* · 강 재 정**

(Kwang-myong Koh · Jae-jung Kang)

목 차

- I. 머리말
- II. 김평진과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
- III. 김평진과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자본형성
- IV. 김평진과 강충남의 사회적 공헌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일본사회 속에서 호텔업과 유기업(遊技業), 전기전선공업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재일(在日)제주인¹⁾의 자본형성에 이바지한 동천(東泉) 김평진(金坪珍)과 효천(曉泉)

† 본고는 2010년 11월(제30집) 『日本近代學研究』(韓國日本近代學會)와 2010년 12월(제14호) 『제주발전연구』(제주발전연구원)에 게재된 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¹⁾ 2010년 기준 현재 재일제주인은 재일한인 578,495명 중 90,882명으로 약 15.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도 157,071명, 경상북도 115,779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강충남(康忠男)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김평진은 일본 관동(關東)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1967년 金海商事(株)를 시작으로 湯島商事 등 7개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았으며, 업종을 전환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사고를 가진 기업가이다. 반면 강충남은 일본 관서(關西)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1955년 富士電線工業(주)을 시작으로 1971년 富士電線販賣(주) 등 5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실적을 올린 재일제주인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 등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전기전선 분야에 심혈을 기울인 기업가이다.

東京國稅局管内(1992) 『高額納稅者全覽』²⁾에 의하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재일제주인의 고액 납세자는 도쿄(東京) 4명(4,981백만 엔), 고베(神戸) 2명(1,348백만 엔), 오사카(大阪)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평진은 전체 신고액(12,634백만 엔) 중에서 199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69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13,842 순위를 차지한 반면, 강충남은 1990년(866백만 엔)보다 약간 늘어난 875백만 엔을 신고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5,562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³⁾

김평진은 金海商社(주)⁴⁾를 비롯하여 湯島商事, 三榮物産, (주)파크사이드, (有)三陽후즈, 金海建物(유), 88HACHI HACHI BLDG 등을 경영하면서 지방언론의 기수인 제주신문의 회장을 맡은 바 있고, 제주 여성교육의 요람인 제주여자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도내의 언론창달과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강충남은 1955년 2월 富士電線工業(주)⁵⁾을 창업하여 일본 내에서 합성수지 전선, 고무전선 제조, 배선기구, 플러그·단말기 가공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그는 富士電線工業(주)을 비롯하여 富士電器工業(주), 富士電線販賣(주), 富士電精工(주),

는 것이다. 入管協會(2010), 『在留外國人統計』.

2) 東京國稅局管内(1992), 『1,000万円を越える 高額納稅者全覽』, 清文社.

3)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4) 김평진은 일본으로 이주한 후 1967년 東京都 台東區 上野에서 김해상사(주)(자본금 2,500만 엔, 종업원 450명)를 설립하여 파친코, 레스토랑, 카바레 등을 경영하였다.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5) 강충남은 1940년 일본으로 이주한 후 1955년 大阪府 柏原市 本郷에서 후지전선공업(주)을 설립하여 전기전선공업 등을 경영하며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동사는 1976년 기준으로 자본금 4,500만 엔, 종업원 수 200명, 연간 매출액 100억 엔을 달성하여 일본 사회 내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용 경동(硬銅)선, 연동선(전선) 제조판매, 평형고무 코드(시장점유율 30%, 1위), 캡(cab)타이어 케이블(시장점유율 25%, 1위), VVF케이블(시장점유율 16%, 1위) 등이다.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富士電工(주)⁶⁾ 등 전기전선 그룹을 경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일본 사회에 투자하고, 제주도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결국, 이들은 金海그룹과 富士電線그룹 등을 경영하면서 제주지역의 호텔경영과 교육사업, 사회사업, 마을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자본 형성과 경영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식·비공식 자료와 통계, 신문기사 자료, 인터뷰 조사(김평진의 처남) 등을 통하여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고향에 애항심을 표현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재일제주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규명한다는 것은 비단 제주도 출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 기업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이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한 재일한인 기업가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김평진과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김평진과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자본형성과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김평진과 강충남의 사회적 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김평진과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

2.1. 김평진의 생애와 업적

김평진은 1926년 4월 2일(호는 東泉, 본관은 金海金氏) 제주도 회천동(回泉洞)에서 부친 김정찬氏와 모친 고영포氏의 3남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각지를 전전한 후 19세 때 동향의 여성과 결혼하여 부인 박윤규氏 사이에 자녀 5남 2녀를 두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여 사업가(4남·2녀)와 의사(5남)로서

6) 富士電工(주)은 大阪市 生野區 中川에서 주로 전기배선기구제조·진공성형업(眞空成型業)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郡英二(大原英司)가 취체역을 맡고 있다.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1(關西版)』.

활약하고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으며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하다 8세 때 삼양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중산간 마을인 회천에서 산길을 오가며 통학하는 소년의 머리에는 바다 건너 어디엔가 청운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다고 한다. 배불리 먹으며 마음 놓고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땅은 어디인가? 소년의 동경은 한없이 뻗어갔다.⁷⁾

그러나 그에게는 좀처럼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15세 되는 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친형 김평식(金坪植)의 사업을 도우며 틈틈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사업경영에 대한 경험을 터득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에게는 이 기간이 지난날의 실의를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20세 되는 해 김평진은 드디어 형의 곁을 떠나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처음에 손을 낸 것은 영세 자본으로 가능한 행상(行商)이었으며, 일용잡화를 걸머지고 거리와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이후 자전거가 생기고 리어카가 생기면서 장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리고 절약하고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 이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행상을 한지 2년 만에 자기 집을 마련한 그는 그동안 벌어놓은 자본을 밀천으로 삼아 사업계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신용을 내건 김평진의 사업은 그야말로 일취월장(日就月將)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고향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인상을 주는 한라산의 아늑한 정경과 푸른 들판,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를 늘 머리에 그리곤 했다. 이러한 향수는 어느새 애향심으로 승화되고 뭔가 고향 제주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⁸⁾

한편 박윤철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⁹⁾, 동천 김평진은 1940년 15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뚫고 자수성가한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끝으로 1942년 3월 도쿄(東京) 오시마중학교(大馬中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1945년 이전 오사카 비누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946년 10월부터 우에노(上野) 비누공장에서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1959년 8월 김해철공소 등을 직접 경영하면서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생활필수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7)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1128~1131쪽.

8)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위의 책, 1334~1336쪽.

9) 박윤철(김평진의 처남) 인터뷰 조사 《2007년 8월 3일, 도쿄 파크사이드 호텔》.

그가 만든 비누가 잘 팔리게 되면서 그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자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비누공장이 성행한다는 조짐이 보이면서 큰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다. 얼마 후 그는 조그마한 라면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가게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게는 협소한 공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밥집인 옆집을 매입하여 가게를 확장했고, 다방도 새로 개점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 번째 점포를 개점할 수 있었다. 이 무렵에는 완전히 사업 기반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이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그는 유기업(パチンコ)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기업 경영을 개시하면서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즈니스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¹⁰⁾

그 이후 그는 1961년 8월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제주도의 소득 원천인 감귤묘목 보급¹¹⁾, 기술지원, 제주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현지 및 일본에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우호 증진에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 동포 학원인 在日東京韓國學院 이사장, 1964년 2월 東京商銀信用組合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1964년 3월 처음으로 국제규모를 갖춘 제주관광호텔을 개관하여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서귀포에 있는 허니문하우스 인수, 현대식 호텔인 서귀포관광호텔을 건립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탁월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관광호텔을 건립했다는 점이다.

1966년 7월에는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여 1995년 11월 2일까지 이사장을 맡아오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7년 3월 29일 숙환으로 타계하였다.¹²⁾ 특히 그는 金海商事(주), 湯島商事, 三榮物産, (주)과크사이드, (有)三陽후즈, 金海建物(유), 88HACHI HACHI BLDG 등에서 회장으로 활동했고, 1977년 제주신문사(현 제주일보)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방 언론계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김평진은 1998년 5월 27일 제주대학교 개교 46주년을 맞아 개교기념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도달하여 자수성가한 재일제주인 기업가로서 지난 1966년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한 이후 이사장에 취임하여 제주지역 여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는 초석을 다졌다. 1981년에는 재일한국교육재단 고문으로서 재일한

10)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288쪽.

11)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40쪽.

12) 《제주일보》 2007년 3월 31일자.

인 2세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해 국가관과 역사, 발전상을 가르쳤다. 그리고 1982년 10월 在日韓國人商工聯合會 회장을 맡으면서 올림픽 지원금을 모금하는 활동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평진은 196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國民章)을 비롯하여 1968년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1981년 모란장(牡丹章), 1987년 무궁화장(無窮花章)을 수상한 바 있다.¹³⁾ 결국, 그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모국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된다.¹⁴⁾

2.2. 강충남의 생애와 업적

강충남¹⁵⁾은 1926년 5월 14일(호는 曉泉, 본관은 谷山康氏 入島 19세손) 제주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細花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표선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40년 14살 때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친척이 경영하는 고무제조 공장에서 고학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억척같은 소년이었다.¹⁶⁾

19세 되는 해 조국의 해방을 맞은 그는 많은 재일한인(在日韓人)들이 귀국을 서두르는 북새통에서도 성공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혼란이 심한 오사카 거리를 누비며 장차 훌륭한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 사는 오사카에서 친척이 경영하는 전선(電線) 관련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성실히 노력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전기전선 생산·제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전선 공급이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분야에서 경영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그는 오사카전문학교(舊制 大阪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太洋化學工業(주)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전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직접 실습에 나서는 등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자신감이 생겼다.

13)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255~321쪽.

14)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292~297쪽.

15) 강충남은 일본으로 건너간 후 김해옥(金海玉)씨와 결혼하여 자녀 2남(隆彦章秀)을 두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을 계승하여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康隆彦(장남)은 明治大學을 졸업한 후 후진전선공업 사장(2001년 기준)을 맡고 있고, 康章秀(차남)는 후진전선공업 부장(2001년 기준)을 맡으면서 關西濟州道民協會에서 청년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라일보사(2001), 『濟州 3000人選』.

16)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59쪽.

그는 6·25동란이 끝나 뒷수습이 한창인 무렵 지금까지 근검, 절약으로 모아둔 소액의 자본과 빚을 얻어 1955년 2월(자본금 2백만 엔) 30대 초 젊은 나이에 주택·토목·건설 부문 등 전선제조 사업에 뛰어들 결심을 하여 富士電線工業(주)을 창업하였다. 당시 후지전선공업은 일본에서 제일한인 기업이 전선회사를 창립한 최초의 회사였다고 회고할 정도로 성장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창업 후 동사는 얼마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급여 수준이 낮고 작업 환경이 연약한 중소기업으로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가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전선업체가 판매부진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제일한인 기업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으며, 신용도 낮아 적자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일본으로 이주할 때 각오와 그 동안 일본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로 창업은 했지만 뿌리 깊은 일본인의 차별과 일본의 경기악화로 인해 악전고투(惡戰苦鬪)의 험난한 길을 걸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희망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명시하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생활의 좌우명이자 기업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성실과 신용으로 직원들의 임금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직원교육에도 힘썼다.¹⁷⁾

또한 그는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안전한 사회에 보낸다.”는 경영정신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였다. 후지(富士) 마크가 선명한 그의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품질보증이 크게 뒷받침되면서 신용을 통한 거래처가 증가하였다.¹⁸⁾ 그 결과, 동사는 연간 매출액 200억 엔, 일본 시장점유율 60%로 동업 420개사 가운데 제1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다.¹⁹⁾ 결국, 제일한인 기업으로 최초의 전선회사인 후지전선공업은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1964년부터 전선업계 주류였던 다품종소량생산에서 고품질을 목표로 전환하여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크게 성장했다.

이후 그는 전기전선공업 분야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 경영관리 우량기업으로 선정되고, 일본 사회에서 신뢰를 쌓는데도 노력하여 1967년 大阪通商産業局長賞을 받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동사는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1967년 大阪府知事賞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합리화 모델공장으로 지정되어 中小企業廳長官賞을 받았다. 1970년에는 공장

17) 濟州商工會議所(1995), “일본사회에 民族의 신용을 뿌리 내린 후지전선 康忠男 사장”, 『濟州商工』 2월호(제269호), 35쪽.

18)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앞의 책, 1324~1325쪽.

19) 강충남(1994), “일본 속의 큰 제주인”, 『제주도』 통권 제96호, 제주도, 26~31쪽.

표준화를 실시하는 우량공장으로 선정되고, 1년 후 1971년에는 中小企業研究센터賞을 받았다. 또다시 1973년에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工業技術院長賞을 받는데 이어, 1981년 10월(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사상 최초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선정되어 일본 공업계에서 최고 영예인 通産大臣賞²⁰⁾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한눈팔지 않고 한 곳에만 매달려 정성과 땀을 쏟으며, 신뢰에 바탕을 두어 전기전선 제조를 통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었다.²¹⁾

또한 이국의 냉대와 차별을 극복하고 오늘의 기반을 구축한 그에게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찌든 가난과 정겨운 추억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품어온 애향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화산중등학교에 비품 및 시설비, 마을에 전기·전화시설과 도로 포장비 등을 지원했으며, 1981년 표선상고에 시설비 및 이설비용을 지원하였다.²²⁾ 또 1984년 5월에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오사카지역 후원회장을 맡아 8억 2천만 원의 거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오사카지역에서 4개 단체(제일제주경제인협회, 제일제주도민회, 제일제주도친목회, 제일제주청년회)로 분산되어 있던 제주도 출신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서제주도민협회를 창립함으로써 오사카지역의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초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제일제주도민단체를 통합했다.”며 감격한 바 있다고 한다.²³⁾ 이외에도 일본 내 제주인의 중심인 그는 1994년 관서지역 제주도민협회를 처음으로 조직하며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민단오사카지방본부 고문,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상담역, 관서은행 이사 등을 역임했다. 결국, 그는 일본 경제의 발전과 제주도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국민훈장 동백장(冬栢章), 석류장(石榴章), 제주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제주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성실과 신용으로 실업계에 투신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하였고, 일본 사회에서 후지전선 공업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크게 부상한 인물이다.

20) 통산대신상은 일본 정부가 산업기술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해마다 일본 전국의 우수 기업과 공장을 심사 및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은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품질규격에 가장 가까운 상품을 가장 적은 원가로 일관성 있게 생산해 내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이 상을 수상한 기업의 생산품은 일본 공업규격표시(JIS)의 상품이 되며, 일본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마츠시다(松下), 도시바(東芝)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 대표들과 함께 수상했는데, 당시 이 상은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 중에서 최초로 수상한 것이었다. 특히, 후지전선공업은 1987년 일본 전선메이커 410사 가운데 1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연간 매출액 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1)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앞의 책, 1324~1325쪽.

22) 제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앞의 책, 208~209쪽.

23) 在外濟州道民會總聯合會(2005), 『地球村 濟州人』, 886~887쪽.

Ⅲ. 김평진과 강충남의 경영정신과 자본형성

3.1. 김평진의 경영정신

3.1.1. 초지관철(初志貫徹)

初志貫徹은 최초에 정한 뜻을 밀고 나아가 목적을 이룬다는 뜻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오로지 인내로써 초지(初志)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말이다(處變當堅百忍以圖成).

김평진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면 무언가 큰 것을 하려는 생각을 계속 품어왔다. 그는 소년시대에 원대한 희망을 갖고 매일 마음을 굳게 가졌다. 그래서 그는 1942년 15세에 고향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른이 되면 꼭 무언가를 하고 싶다. 거기에는 제주도와 같은 작은 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의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 한발자국씩 나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자신의 결의를 가다듬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이어서 소년의 꿈이 무참히도 무너지는 비상시였다. 그의 큰 희망을 누구보다도 믿어 주었던 모친의 죽음으로 가장 큰 좌절을 느꼈으며, 또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大攻襲)으로 살고 있었던 집도 타버렸다. 이후 도쿄에서 겨우 이바라기현(茨城県)으로 이사했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희망을 2년 정도 미룬 채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당시 도쿄는 전후(戰後)의 혼란과 격동기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마저 힘든 시기였지만 그는 모든 곤란을 이겨내고자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과의 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밤낮으로 흔들림 없이 걷고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것이 현재 세제(洗劑)라고 불리는 물비누(水石鹼)였다. 그는 이것을 도쿄 도내의 각 상점을 돌면서 팔았으며, 드디어 자신의 점포를 갖기까지 발품을 팔면서 생활을 유지해 왔다.

당시는 누구라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때 그는 생애 중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이나 손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소년시절에 막연히 무언가 하자. 인생을 관철하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여 품고 있었던 마음의 의지대로 차근차

근 만들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상인으로서 나의 인생에서 귀중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인간은 대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인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당연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몸에 배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라고 말하기보다도 세심한 배려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금전의 유무나 신분의 고저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모두 동등하게 성의를 갖고 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초지관철이 되었을 때 어떠한 힘든 나날을 보내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그것은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에 자라면서 찌든 가난과 자신의 못 배운 한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는 강인한 집념과 철학의 소산에서 나타난 표현일 것이다.

3.1.2. 시간엄수(時間嚴守)

김평진은 성격적으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인생에서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간 약속의 이행불이행(履行不履行)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일부분 헤아리는데 하나의 척도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좌우지간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 이것이 기회라고 인식하여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무런 일다운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인 경우에도 시간과 스피드와의 결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른바 찬스(Chance)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추진해야 될 시기나 후퇴해야 될 시기에 임기응변으로 타격을 보더라도 승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²⁵⁾

24) 鶴岡正夫(1981), 『在日韓国人の百年—私の生活信条』, 育英出版社, 160~163쪽.

25) 韓日問題研究所編(1987), 『在日韓国人三百六十人集—在日同胞現代小史』, 105쪽.

3.1.3 신용제일주의(信用第一主義)

김평진은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신용, 근면, 절약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용을 생명으로 알고 행동에 옮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박윤철(김평진의 처남)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는 일본 금융기관에서 1959년 5억 엔(1차 1억 5천만 엔, 2차 3억 5천만 엔), 1981년 1억 8천만을 신용으로 빌린 적이 있었다. 또한 그는 당시 음식점 부문에서 남세 실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가 좋았다고 한다.²⁶⁾ 그가 해방 이후 최근까지 50년간 여러 회사를 차례로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팔목할만한 영업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다.

따라서 김평진은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재일제주인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에서도 항상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객우선, 근면, 절약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제일주의에 의한 경영관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근검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3.2. 강충남의 경영정신

강충남은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을 포괄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사회에 제공해서 사회의 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여기에 사훈의 융성을 시도하는 튼튼하고 영구적인 기반을 쌓아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시(경영 기본방침)를 성문화했다. 이러한 사시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경영철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6) 박윤철(김평진의 처남) 인터뷰 조사 《2007년 8월 3일, 도쿄 파크사이드 호텔》

첫째, 사원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사회에 공헌하게 되고, 그것이 사원의 행복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의 경영목적이 전 사원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²⁷⁾ 이처럼 그는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이 사시를 구현하기 위해 50년 동안 모든 노력을 쏟아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강충남은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誠實’, ‘信用’, ‘人間中心經營’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3.2.1. 성실(誠實)

강충남은 성실과 인내에 바탕을 두고 축적된 신용으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실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자립심을 갖는 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는 일이야말로 곧 자립이라고 생각했다. 어떠한 곤란에 처하더라도 헤쳐나갈 자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닌 성실이라는 무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것을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일을 위해 현재를 보다 좋게 살아가고 실제 자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실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결국, 그는 회사 내 회의실에 성실이라는 액자가 걸려있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신용과 신뢰를 쌓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다해 왔음을 알 수 있다.²⁹⁾

3.2.2. 신용(信用)

강충남은 기업경영을 통해 민족의 신용을 일본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자신의 신조대로 성실히 노력해야만 사원은 물론 일본 사회로부터

27)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5~36쪽.

28) 鶴岡正夫(1981), 앞의 책, 88~91쪽.

29) 濟州青年會(1980), 『濟青春秋』, 第24号, 26~27쪽.

신용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50년간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사랑을 받고 외길로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여건에 비해 불평불만을 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을 가져 신용을 쌓아갔기 때문이다. 품질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을 때 소비자가 안심하게 쓸 수 있고, 보다 값싼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밤낮을 연구했다고 한다. 결국, 신뢰와 신용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용의주도한 계획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통산대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따라서 그는 돈을 벌더라도 신용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그 돈은 곧 사라지고 만다면서 앞으로 내 자신, 내 회사의 신용과 민족의 신용을 쌓는데 더욱 더 노력하면서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3.2.3. 인간중심경영(人間中心經營)

강충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원을 생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인간중심의 경영철학³¹⁾을 기본신조로 삼아 이를 성실하게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사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교육하고 격려하였다. 특히 그는 사원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간중심의 경영은 사원 가운데 3일 이상 결근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가정을 돌보아 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후지전선공업은 일본인 사원은 물론 그 가족 및 이웃들과 다른 기업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재일한인 회사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배척과 소외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³²⁾

이 외에도 그는 당시 다품종소량생산이 일반적이었던 전선업계의 관행을 깨고 1962년 생산품종을 4개로 제한하는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 후 동사는 1963년부터 드디어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영실적이 완전히 흑자로 돌

30)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82), 『濟經』, 第4号, 122~126쪽.

31) 주로 저학력자인 사원들을 이끌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100%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즉 열악한 여건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사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일할 마음을 갖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경영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당시 그의 생각은 사원 모두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집단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사시를 말단 사원에까지 몸배도록 힘쓰는 한편 품질표준화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사원교육을 시작했던 것이다.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6쪽.

32)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8쪽.

아서게 됐다. 그때부터 소품종대량생산과 고품질을 목표로 한 후지전선공업은 당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물결에 힘입어 생산판매 실적이 크게 신장됐으며, 1인당 생산성에서 같은 업계의 최고수준에 이르게 하여 신제품의 기술개발과 함께 업계의 정상을 겨냥하면서 매진했다. 그 결과, 동사는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 우량공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본 내외에 신용이 높아졌으며, 제일한인 기업이 절대로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일본의 편견을 깨뜨리는데도 기여했다.³³⁾

따라서 강충남은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기업가활동을 수행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제일제주인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에서도 항상 성실과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간중심경영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제일제주인 기업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에 의한 기업관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품질표준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3.3. 김평진과 강충남의 자본형성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특히 상공업분야에 두드러지게 진출하였다.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점차적으로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였다. 일부 제일한인은 이러한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고무공장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후 제일한인들은 음료, 유기업, 대중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중에서 파친코 사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빨라 사업기반이 취약한 제일한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³⁴⁾

1950년대 중반 일본 정부의 규제로 많은 파친코 사업체가 도산하였으나 제일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계(民族系)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제일한인

33) 제주상공회의소(1995), 앞의 자료, 36쪽.

34)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들은 그 덕택으로 파친코업계를 점차 장악하면서 견실한 사업기반을 구축해나갔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시켜 나갔다. 전후 일본에 남아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한인들이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 중 상당수의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류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일본 국내 골지의 기업을 창업시킨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주 초기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³⁶⁾

<표 1>에서 보면 당시(1991년 기준) 일본에서 고액납세 신고자는 도쿄 4명(4,981백만 엔), 교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나타난 납세 신고금액은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 애월읍 390백만 엔, 한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각각 1명)으로 제주시 출신이 50% 이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신고금액(1991년 기준)에서 보면, 김평진은 일본 내의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361백만 엔(김해상사(주))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는 제1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강충남은 일본 내의 전체 신고액 12,634백만 엔 중에서 875백만 엔(富士電線工業(주))과 666백만 엔(富士電線販賣(주))을 신고함으로써 개별 기업가로 제2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1년도 신고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35) 梁京姬(2009), “在日韓国人企業家が韓国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쪽.

36) 고광명(2010),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예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39쪽.

<표 1> 제일제 주인 기업가 소득신고 순위(1990년과 1991년)

(단위 : 백만 엔)

順位	會社名(所在地)	代表者(出身地)	1990년 신고금액	1991년 신고금액	일본 내 순위
1	天馬(東京)	金鳳根(濟州市)	4,228	4,462	1,121
2	富士電線(大阪)	康忠男(表善面)	866	875	5,562
3	平和産業(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755	6,451
4	大邦興業(大阪)	李鼎根(大靜邑)	676	719	6,758
5	星田골프(大阪)	金致富(濟州市)	3,836	710	6,854
6	富士電販(大阪)	康忠男(表善面)	614	666	7,302
7	平和고무(神戸)	姜順贊(翰林邑)	412	593	8,271
8	盛宏(大阪)	安仁淳(濟州市)	523	461	10,717
9	光住建(大阪)	姜哲熙(涯月邑)	122	390	12,795
10	共榮産業(大阪)	李純安(大靜邑)	244	369	13,603
11	金海商事(東京)	金坪珍(濟州市)	171	361	13,842
12	南海會館(大阪)	金昌仁(翰林邑)	132	340	14,667
13	朝日사이렌(大阪)	康贊旭(翰林邑)	412	282	17,691
14	藤田土地(大阪)	金良雄(濟州市)	59	233	21,381
15	日本有機(大阪)	安在祐(表善面)	142	148	33,461
16	ABC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127	141	34,986
17	近畿自動車教(大阪)	金奉逸(朝天邑)	117	114	43,129
18	大德企業(大阪)	李林根(大靜邑)	99	113	43,470
19	그랜드觀光(大阪)	梁熙晋(南元邑)	78	112	43,486
20	共和紙料(大阪)	金永孝(南元邑)	109	107	45,471
21	松岡단추(大阪)	李寬珩(翰京面)	53	102	47,835
22	第一觀光(東京)	梁熙晋(南元邑)	78	94	51,906
23	愛三産業(東京)	白昌鎬(濟州市)	94	64	74,089
24	眞田化工(大阪)	愼在孝(濟州市)	60	62	76,087
25	丸和(大阪)	吳文弼(翰林邑)	-	61	78,105
26	大信(大阪)	韓長淑(朝天邑)	41	58	81,535
27	新井고무(大阪)	朴達炯(濟州市)	56	55	84,416
28	東洋産業(大阪)	朴東烈(西歸浦)	-	49	93,708
29	昌慶苑(大阪)	金其彦(旧左邑)	-	49	95,145
30	第一化成(大阪)	金富雄(濟州市)	-	48	96,755
31	東京運輸(大阪)	金達孝(城山邑)	43	41	111,185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IV. 김평진과 강충남의 사회적 공헌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람, 땅, 돈, 자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 기업은 이것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활용해서 국내외의 어떤 기업의 제품보다 양질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는다.³⁷⁾ 그

와 같은 경영 노력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그리고 배당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나머지를 이윤으로 축적해서 기업발전의 재원으로 쓴다. 이처럼 기업의 공헌이란 사회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 조성이다. 곧 기업은 수익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경영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배당, 지역사회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4.1. 김평진의 사회적 공헌

4.1.1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

제주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역사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인적자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8·15해방, 4·3사건, 6·25전쟁 등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우리 민족과 제주지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을 했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과 제주인의 가슴속에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의 억압된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힘겹게 이어온 민족의 저력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여자학원은 1946년 제주고등여학교로 개교하고, 1947년 제주여자 초급중학교 인가와 함께 재단설립 인가를 받았다. 1951년 8월 31일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6학급 인가를 받고 동년 9월 25일 제주 최초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본 학원은 호은(湖隱) 김홍빈(金弘斌)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194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 김인현(1946.2.10~1964.12.26)이 취임한 이후 김승전(1964.12.27~1965.5.18), 김인경(1965.5.19~1966.8.8) 이사장에 이르는 동안 설립자 형제간의 학교 경영에 대한 의견과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제주여자학원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

37)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6쪽.

황이 되었다. 이때 제일제주인 기업가 김평진은 형님인 김평식(당시 제주관광호텔 사장)의 주선으로 1966년 7월 제주여자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게 되었다. 동년 8월 15일 본교 강당에서 김평진 이사장의 성대한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정우식(鄭雨澁) 도지사, 최정숙(催貞淑) 교육감 등 30여명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제주여자학원 제 2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평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직 이사장들의 공적을 이어받아 이 학교를 타교에 손색이 없는 선구적인 위치로 올려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현재의 빈약한 학교시설은 현황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취임사의 공언대로 1972년 아라동 현재 부지로 이설하여 당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할 당시 김인호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김평진은 학원 인수 후 전 교직원에게 양복 한 벌 값에 해당하는 8천원을 지급했으며, 전교직원에게 ‘인화(人和)와 화합(和合)’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출발한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진은 김평식, 강주철, 채원배, 김계남, 이경수, 홍성립씨 등 6명이 선임되었다.³⁸⁾

현재는 장남 김화남(金和男)³⁹⁾이 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11.3~현재)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시 김화남 이사장은 취임 기념사업으로 제2도서관과 시청각실, 중강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증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김평진(전 이사장)이 연로한 점도 있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면에서 젊은 이사장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사장 취임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김화남 이사장의 취임으로 인해 전 이사장의 업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교가 한층 더 활기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1.2. 관광개발에 대한 공헌

1962년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제일제주개발협회의 향토방문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38)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외(2006), 『건학 60년』, 393~394쪽.

39) 김화남 이사장은 1945년 12월 7일 동경에서 출생하여 1967년 일본 立教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예체능에 매우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키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정도로 뛰어났고 기타 연주도 수준급이다. 1967년 김해상사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서귀포관광호텔 사장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발을 들여놓았다. 1977년에는 (주)김해상사 대표 취체역에 취임하고, 1990년에는 제일본 한국인청년상공연합회 회장을 맡아 민단(民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1995년에는 제일본 제주도민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동년 11월 3일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국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박정희)을 예방했다. 박정희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에 관해서 역설하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수용 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김영관(金榮寬)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기술자를 초청했을 때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초가집 여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도지사 관저에 숙박하게 했습니다. 중앙에서 귀빈이 오시더라도 숙박할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현대적 설비를 갖춘 만족할만한 호텔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제일한인 중에서 호텔을 지어줄 분이 없을까요?”하고 말을 꺼냈다. 그때 김평진(제주개발협회 회장)은 즉석에서 “내가 제주도에 근대적인 호텔을 짓겠습니다.”하며 박의장에게 진언했다고 한다.⁴⁰⁾

김평진(金坪珍)은 1963년 외국인이 투숙할 만한 호텔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약 3천만 원으로 제주도에 현대식 시설(건평 2,890㎡)을 갖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관광호텔)을 지었다.⁴¹⁾ 관광호텔 건설시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평진은 다른 유익한 사업에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조금을 거절하고 모두 자력으로 완성했다. 비록 객실 33개의 작은 호텔이었지만 쇼핑몰, 커피숍, 레스토랑 등을 갖춘 최신식 호텔을 건설하였다. 이후 그는 1964년에 서귀포에 허니문하우스(현 파라다이스호텔)와 서귀포관광호텔을 연이어 건립해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⁴²⁾.

당시 이 호텔에 대한 소문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서 호텔을 구경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제주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먼 거리를 왔었다고 한다. 결국, 김평진은 개발초기 제주도에 호텔을 건설하면서 관광산업의 인프라 정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가였다.⁴³⁾

40)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앞의 책, 말·글·빛·냄, 269~271쪽.

41) 《제주신문》 1963년 10월 15일자.

42)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은 제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1960년 6,600명에서 2007년 543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도 관광 수입은 2조 2,144억 원으로 제주도 지역총생산 8조 696억 원의 27%를 차지했다. 결국, 제주도 관광 수입은 동 년도 제주도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43) 제일한인의 제주도 방문은 1961년 100명 미만이었지만 1962년 542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1969년 제주~오사카 간에 직행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1970년 4,588명, 1971년 5,477명, 1972년 5,821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제일한인 방문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제주도에 대한 투자와 기부 건수도 증가했다.

4.1.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지금까지 제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제일제주인 중에서 김평진은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제주개발을 위한 활동을 여러 면에서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표 2>에서 보면, 김평진은 1962년 5월 회천분교에 비품(678천 원)을 회사한 것을 비롯하여 1963년 제주도에 벚꽃 묘목 15,000본, 동년 삼양초등학교와 회천분교에 비품, 1963년 제주개발 기금(4,500만 엔)과 감귤묘목, 1965년 제주도청에 교환대와 전화기, 1966년 회천분교에 교실 건축부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수 이후에는 1972년 새마을 사업 성금(300천 원), 1978년 2도동사무소 비품(200천 원), 1984년 전국소년체전 성금(20,000천 원), 2001년 월드컵경기장 건립기금(3,000천 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러한 투자는 제일한인 재산 반입의 동기가 되고 제주도 출신들에게 애향심 발로의 가교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는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하여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갔고, 이후 1977년 제주신문사에 투자하여 언론의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⁴⁴⁾

<표 2> 동천 김평진의 지역사회공헌 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제주도청	전화기·교환대	현물	940	61	제주도청 전화시설	1965
제주도청	사업 성금	현금	300		새마을 사업 성금	1972
제주도체육회	성금	현금	20,000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성금	1984
삼양동	건립 기금	현금	600		삼양초등학교 건립	1963
삼양동	피아노	현물	60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삼양동	오르간 외	현물	35	2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3
삼양동	오르간	현물	25	1	삼양초등학교 비품	1964
봉개동	오르간·사이렌	현물	678	2	회천분교 비품	1962
봉개동	신축 기금	현금	605		회천분교 신축	1966
2도동	등사기	현물	200	1	2도동사무소 비품	1978
서귀포시	건립 기금	현금	3,000		월드컵경기장 건립 기금	2001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필자 조사 작성.

44) 고팡명(2010). 앞의 논문, 239쪽.

4.2. 강충남의 사회적 공헌

제일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공헌은 제주도·제주도민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적 결속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것은 제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제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⁴⁵⁾

제일제주인의 공헌 실적은 전체적으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 즉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증이 가장 활발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초 개발단계에서는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새마을 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마을개발, 교육·문화 등이 제주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교육 분야와 같은 미래지향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공헌 동기도 초기의 동정적 애향심, 경제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과시와 사회적 명예, 체면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제일제주인은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감귤진흥, 전화·전기, 수도, 도로포장, 문화·체육·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제일제주인 중에서 강충남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표 3>에서 보면 그는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금(5천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장학금 및 학술연구기금 등(10억 원), 이도동 기념사업과 건립기금 등을 기증하였다. 특히, 그는 고향 마을에 화산초등학교 시설비(175천 원)·이설비용(600천 원), 전기가설 및 전화 사업비(2,350천 원), 도로 포장비(1,000천 원), 구판장 건축비(1,680천 원), 새마을 사업비(4,000천 원), 표선상고 이설비용(5천만 원), 표선중학교 및 면사무소 환경조성 지원(1,000천 원), 화산초등학교 비품(2,240천 원) 및 급식소 시설비(6천5백만 원), 리사무소 건축비(4천2백만 원), 체육관 건립기금(2천5백만 원), 복지회관 신축(2천만 원), 월드컵 경기장 건립기금(10,141천 원), 마을 운영기금(1천만 원) 등 그동안 매년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0년대 초와 80년대의 지원내역을

45) 고평명·진관훈(2006), “제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현재의 화폐로 환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향리의 새마을 사업과 표선상업고등학교 이설사업에 큰 공적을 남겼으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의 본도 개최에 대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제일제주인의 지역사회공헌은 제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주도간의 사회적 결합의 강도를 파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치고 제일제주인의 공헌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충남의 공헌은 수혜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도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지역개발을 비롯한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역할을 다하였다.⁴⁶⁾ 이렇듯 그는 과거 고향발전에만 대한 제일제주교민들의 애향심 충정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고향도 제일제주교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호간 보완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표 3> 효천 강충남의 지역사회공헌 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개)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기증년도
제주도체육회		현금	50,000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984
제주대학교		현금	200,000		효천 의과대학 학술연구 기금	1999
제주대학교		현금	300,000		효천 장학금	1999
제주대학교		현금	300,000		효천 이공계 학술연구 기금	2000
제주대학교		현금	100,000		효천 의과대학 기금	2000
제주대학교		현금	100,000		효천 언론홍보학과 기금	2000
이도동		현금	800		독립지사 및 김만덕 기념사업	1976
이도동		현금	1,000		제주상공회의소 건립 기금	1980
연동		현금	3,000		체육진흥	1980
표선면		현금	175		화산초등학교 시설비	1964
표선면		현금	1,350		세화리 전기 가설비	1973
표선면		현금	600		표선중학교 이설비	1973
표선면		현금	1,000		세화1리 전화 사업비	1973
표선면		현금	1,000		표선~가시리간 도로 포장비	1975
표선면		현금	1,680		세화1리 구관장 건축비	1975
표선면		현금	3,000		세화1리 새마을사업 기금	1980
표선면		현금	1,000		세화1리 새마을 사업비	1980

46) 고평명(2008), “제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187~210쪽.

표선면	피아노	현물	1,120	1	화산초등학교 비품	1981
표선면		현금	50,000		표선상고 이설비용	1981
표선면	피아노	현물	1,120	1	화산초등학교 비품	1981
표선면		현금	1,500		표선상고 이설 축하 찬조비	1983
표선면		현금	500		표선중학교 환경조성 지원비	1983
표선면		현금	500		표선면사무소 환경조성 지원비	1983
표선면		현금	42,000		세화1리 사무소 건축비	1989
표선면		현금	42,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시설비	1993
표선면		현금	23,000		화산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1994
표선면		현금	25,000		표선면민 체육관 건립기금	1996
표선면		현금	20,000		세화1리 복지회관 신축	1998
표선면		현금	10,141		월드컵경기장 건립기금	2000
표선면		현금	10,000		마을회 운영기금	2006

자료 :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60쪽.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필자 조사 작성.

V. 맺음말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김평진과 강충남)의 일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어떤 경영정신으로 일본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기여했으며, 또 제주도에 대한 이들의 애향심이 제주도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면밀히 고찰한 것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평진은 관광제주의 미래를 설계한 탁월한 식견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외국인이 투숙할만한 호텔이 없어 1964년 제주도 최초의 제주관광호텔을 개관한 이래 허니문하우스, 서귀포관광호텔을 개관하여 제주도의 관광개발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초지관철, 시간엄수, 신용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기업가이다. 그리고 제주여자학원 인수하여 교육발전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토발전을 위해 육영사업, 사회사업, 경기장 건립, 새마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회사업가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도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제주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재배기술을 몸소 익히도록 배려한 사회개혁가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여 제주에

향운동장 건설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제주발전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반면 강충남은 한 가지 일에만 성실하게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했고 그것이 자산이 되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되었다. 또한 그는 외길을 걷지 않고 꾸준히 전선전기 분야로만 충실하게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성실, 신용, 인간중심의 경영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이룩한 기업가였다. 또한 그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표선면에 공공시설 건설, 학교 건립, 마을 전기 가설, 도로 포장 등에 고액의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 장학금과 학술연구 기금으로 10억 원을 흔쾌히 기증하여 후학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게다가 그는 오사카지역에서 4개 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제주도 출신단체를 관서제주도민협회(關西濟州道民協會)로 통합하여 창립함으로써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끌었다.

김평진과 강충남의 경영스타일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내의 투자관점에서 본다면 김평진은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투자를 하여 경영성과를 내고자 하였는데, 반면 강충남은 그의 경영스타일대로 한 가지 사업에만 매달려 제주도내의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주로 자금지원을 통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겠다.

최근에 들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해외 인적교류가 절실한 시점에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연대성과 동질성을 강화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평진과 강충남은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정신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한 기업가였다. 이들은 김해상사(주), 파크사이드 호텔, 富士電線工業(주) 등의 상공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제주지역의 교육사업과 사회사업, 마을발전에 투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였다. 결국, 이들은 “중요한 것은 기계나 돈이 아니고 인간이다.”고 강조하면서 성실과 신뢰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이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재일한인 기업가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姜龍三·李京洙 編著(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 강충남(1994), “일본 속의 큰 제주인”, 『제주도』 통권 제96호, 제주도, 26~31쪽.
-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學研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學會, 187~210쪽.
- 고광명(2010a),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 『日本近代學研究』 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217~242쪽.
- 고광명(2010b), “재일(在日)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공헌”,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 고광명(2010c),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 『日本近代學研究』 第30輯, 韓國日本近代學會, 315~333쪽.
- 고광명(2010d),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曉泉 康忠男 연구” 『제주발전연구』 제14호, 제주발전연구원, 81~105쪽.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1)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8~181쪽.
- 나가노 신이치로 편저(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말·글·빛냄.
- 박윤철(김평진의 처남)인터뷰 조사 2007년 8월 3일
- 삼성경제연구소(1989), 『호암의 경영철학』.
- 吳大賢編著(1983), 『表善面郷土誌』, 泰明印刷社.
- 在外濟州道民會總聯合會(2005), 『地球村 濟州人』, 886~887쪽.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 재외동포재단.
-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2005),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 在日濟州經濟人協會(1982), 『濟經』, 第4号, 122~126쪽.
- 제주발전연구원(2007),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 濟州商工會議所(1995), “일본사회에 民族의 신용을 뿌리 내린 후지전선 康忠男 사장”, 『濟州商工』 2월호(제269호), 35쪽.
- 제주여자고등학교(2001), 『제주여고 50년사』.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외(2006), 『건학60년』.
- 한라일보사(2001), 『濟州 3000人選』.
- 濟州青年會(1980), 『濟青春秋』, 第24号, 18~27쪽.
- 《제주신문》 1963년 10월 15일자.
- 《제주일보》 2007년 3월 31일자.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1(關西版)』.
- 東京國稅局管内(1992), 『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稅者全覽』, 清文社.
- 梁京姬(2009), “在日韓國人企業家が韓國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國朝鮮研究』 第9号, 現代韓國朝鮮學會, 16~30쪽.
- 永野慎一郎編(2010), 『韓國の經濟發展と在日韓國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 入管協會(2010), 『在留外國人統計』.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 在日韓國商工會議所(1997), 『在日韓國人會社名鑑』.
- 統一日報社(1976), 『在日韓國人企業名鑑』.
- 鶴岡正夫(1981), 『在日韓國人の百年—私の生活信條』, 育英出版社.
- 韓日問題研究所編(1987), 『在日韓國人三百六十人集—在日同胞現代小史』.